

2021년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1. 1. 26(화) 14:00 – 15:30
- 장 소 : 서울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2명
 - 회 장 : 임대기
 - 前집행부배석 : (부회장) 진장옥, 최경열, 백옥자, 윤여춘, 김정봉
 - 대 의 원 : 이상민(서울), 이재홍(부산), 오성관(대구), 이철호(인천), 김영희(대전), 김진원(경기), 우종찬(충북), 전용환(충남), 문정구(전북), 김대천(전남), 최경용(경북), 유헌태(경남), 곽상윤(제주), 정한(중고), 김태진(실업)
- 대한육상연맹 회장선거 경과보고 : 사회자
- 신임회장 및 대의원 소개
- 성원보고 및 개식통고 : 사회자
- 개회선언 : 임대기 회장
- 인사말 : 임대기 회장

존경하는 대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아 대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난15일 실시된 대한육상연맹선거에서 당선된 임대기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게 대한육상연맹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의원여러분들과 육상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여파로 인한 국내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초 취임식 일정에 맞춰 제24대 집행부 추진방향을 말씀드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임식 개최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진하나마 오늘 제24대 집행부 기본 방향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세계와의 경기력 격차 지속과 이제는 아시아권에서 조차 메달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등록선수와 육상팀 감소 등 한국 육상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고 당분간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육상계 전체가 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열정으로 한국 육상의 도약을 위해 도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선수 육성발굴 시스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여 차세대 우수선수들이 순조롭게 성장하며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기력 강화와 지도자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우수선수들 대상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과학 지원 시스템 실행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함께 국제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일수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교육이며, 지도자 교육과 선수 육성은 한국 육상의 백년대계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육상교육훈련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도자 역량 강화와 함께 한국 육상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체육 육상 활성화를 통한 육상저변확대입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육상은 선진국에서 전국민이 즐기는

생활스포츠입니다.

이제 한국육상도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육상 스타선수, 꿈나무, 유망주와 후원사를 연계한 캠페인 등 한국 육상의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면, 생활체육 육상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구축되고 자연스럽게 육상 저변확대로 연계되어 그안에서 엘리트 선수들을 발굴하며 육성하는 선진국형 육상 체계로 발전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 삶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 대응체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난해 연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종목 단체 중 가장 모범적이며 선도적인 대회 방역체제를 적용하여 불상사 없는 대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대회방역 체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안전한 대회운영을 정착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 개최 여부는 3월 IOC 총회에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맹은 '예정대로 개최된다'라는 자세로 올림픽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물론 단기간내 경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는 없겠으나, 새로운 24대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올림픽 대표팀 지원체제 가동을 통해 출전이 확정된 선수들과 추가 출전권 획득이 유력한 선수들이 올림픽 현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체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스포츠

분야 4대 악, 인권,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육상계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육상계 전체가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통해 모범적인 클린 육상 이미지를 지속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육상연맹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과 육상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육상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대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육상앞에 놓인 현안 과제들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하며, 저도 대의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한국 육상의 재도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계획한 모든 일이 이뤄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안건심의

◆ 제 1 호 : 전차 총회 회의결과 보고의 건

사회자로부터 [전차 총회 회의결과 보고]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접수함.

◆ 제 2 호 : 감사 보고의 건

대한육상연맹 행정감사 최경용 / 회계감사 정우창 감사로부터 감사결과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 접수함.

◆ 제 3 호 : 연맹정관 개정의 건

사회자로부터 [연맹정관 개정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개정할 것과 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과정

중 수정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연맹 사무처에 위임하여 수정하고 차기총회에 보고 하기로 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

◆ **제 4 호 : 2020년도 사업결과 승인 건**

사회자로부터 [2020년도 사업결과 승인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 **제 5 호 : 2020년도 결산 승인 건**

사회자로부터 [2020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 **제 6 호 : 대한육상연맹 집행부 임원 선임의 건**

사회자로부터 [대한육상연맹 집행부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집행부 임원 선임의 권한을 임대기 회장께 위임함.

- 참석 대의원으로부터 행정감사에는 전용환 대의원, 회계감사에는 정우창 회계감사를 추천받았고 임대기 회장 승인으로 감사로 선임함.

◆ **제 7 호 : 대한육상연맹 명예회장 위촉의 건**

사회자로부터 [대한육상연맹 명예회장 위촉의 건]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장에 전 집행부 회장을 역임하셨던 배호원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자한다는 제안에 참석 대의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산 회 15:30

기록 : 김상우 주임